일본 아마 전통의 변화

D. P. 마르티네즈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부)

머리말

내가 1981/82년에 일본 아마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를 시작했을 때, 영어로 된 아마에 대한 인류학 책은 마라이니Maraini의 『헤구라 시마[헤구라지마]』(1962) 1권뿐이었다. 이탈리아 민족지학자인 마라이니는 아이누족Ainu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또한 예민한 사진가였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헤구라지마에서 2주간 머문 뒤에 쓴 민족지라기보다는 그때까지도 반나체로 물질하는 헤구라지마의 아마에 대한 사진집에 가깝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된 참고문헌은 매우 유용하며, 이 책이 이안 플레밍Ian Fleming의 『007 두 번 산다You only live twice』(1978)라는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이 책은 20세기 내내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물질작업의 형태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아마가 다른 일본인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마의 독특성에 대한 전제는 마라이니가 아마 가족은 여가장제(모권제matriarchy)라고 판단한 것, 즉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헤구라에서는 남자가 2차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Linhart 1988 참조).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듯이, 아마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조혜정의 1979년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의 해녀에 대한 연구가 큰 도움을 주었다. 조혜정의 논문은 제주도의 모계제 결혼형태와 해녀의 성별(젠더)우위성이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아마에 관한 영어 문헌 대부분이 여가장제(女家長制)를 다루고 있고(Rahn과 Yokoyama 편, 1965의 여러 논문 참조) 아마가 다른 일본인과 다른 종족일 가능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혜정의 논문은 사전 현지조사를 하는 내게 중요한 연구였다.

아마에 대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아마가 다른 일본여성에 비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무거운 경향이 있고, 폐활량이 매우 크고 찬 물을 견디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Teruoka 1932; Keatinge 1969 참조). 1970년대의 생리학적 연구는 한국해녀와 일본아마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입증한 듯 보였다. 그러나 홍박사(Dr. S. Y. Hong)가 1984년 의학학술회의에서 강연할 때 나는 이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아마들이 잠수복을 입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찬 물을 견디는 능력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홍박사(와 연구팀)는 아마의 이런 측면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

고 있다는 점만을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마에 대한 연구에서 아마는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과 종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은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라이니는 이 이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아마는 종족적으로 보통의 일본사람들과 같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가 마라이니로 인해 처음에 잘못 알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보통의 일본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마라이니의 입장은 전통적인 부계 농가(이에)가 일본사회에서 친족, 결혼, 노동조직의 모델이라고 생각한 결과로 보인다. 야나기타 구니오(Yanagita Kunio 1931; 1981)가 주도한 일본 해안가와 섬 전체의 전통, 관습, 신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나카네 지에(Nakane Chie)가 쓴 『일본농촌의 친족과 경제조직』(1967)이라는 책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또한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Birukawa 1965 참조) 아마와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의 아마는 한국에서 이주해 온 것이라는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정보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본인의 기원은 아마도 고대 한국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와 해녀의 남편들은 어부이고, 물질작업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아마와 해녀의 연관 가능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세가와(Segawa)는 1930년대 구자키(國崎)에 불행한 한국인 아내가 있었다고 썼다(1956:19). 1980년대 구자키의 할머니들은 한국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름에 출가물질을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미혼일 때에는 다른 아마들과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물질을 하였고, 결혼한 뒤에는 가족의 배로 일본 해안가나 때로는 한국에까지 갔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한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한국어로 수를 셀 수 있었으며, 고기잡이와 물질을 하는 부모를 따라 어렸을 때 제주에서 지낸 여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일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생계를 의지하는 남녀의 삶과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삶은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도쿠가와 통일시대(1603-1868년)와 메이지 유신(1868년), 그리고 20세기의 민족국가 형성 등이—아마는 예외적인 사람이므로 일본을 연구할 때 연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일본연구자들과 현대의 일본인들에게—이러한 사실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아마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시마(志摩)의 아마를 연구한 데이비드 플래스(David Plath, n.d.)도 나도 전형적이지 않는 그런 일본인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아마는 여러 이유에서 여전히 흥미로운 존재인데, 플래스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오랜 작업기간, 자연자원으로서의 바다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아마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를 견디어내는지, 즉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한 구자키의 남녀의 예를 들기 때문에, 어떤 예는 일반화하기 힘든 매우 구체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예들은 일본 전역에 공통적인 것이다.

아마의 높은 지위의 문제: 일반적 배경

마라이니의 아마에 대한 정의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는 “남녀 모두가 모든 종류의 고기잡이와 물속에서의 채집에 능하다는 사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1962:17) 어부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정의는 유용하다. 아마가 고기잡이와 물속에서 채집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많은 서구인들은 아마가 진주를 잡기위해 잠수를 하는 것, 즉 진주잡이 잠수부로 가정한다. 물론 시마의 아마는 오랫동안 진주양식 산업에 관여해 왔지만, 아마가 진주잡이 잠수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여자만이 잠수를 한다는 것이 아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마라이니의 정의는 아마가 남자이거나 여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마”라는 명칭 자체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마를 쓸 때 사용하는 한자에 따라, 아마라는 단어는 어부, 여성 나잠업자, 어업종사자 전체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캘랜드Kalland가 “아마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는 단어 자체의 불명확성 때문에 어렵다”(1988:48n. 1)고 이야기했듯이, 아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은 아마에 대한 기록은 남성 나잠업자, 여성 나잠업자, 혹은 어부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물질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나잠업자의 성별을 가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단지 나잠업자를 가리키는 텍스트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사실 아마에 대한 다양한 의미 말고도, 고기잡이와 잠수라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아마를 사용하는 것과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거의 종족집단처럼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이야기할 때 아마를 사용하는 것에는 모호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마에 대한 많은 문헌들은 아마가 일본에서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한다. 생리학자인 누카다 미노루는, 신석기 시대의 조개무덤에서 발견한 고고학적 증거를 들어, 아마가 적어도 2천년간 존재했다고 주장한다(1965:27). 캘랜드도 큐슈지방의 후쿠오카현의 조개무덤에서 바위에서 조개를 떼어내는데 사용하는 철제 칼과 닮은, 고래 뼈로 만든 도구가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1988:30).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나잠업이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지리학자인 비루카와 쇼헤이는 두세 개 지역을 거론하였다(1965:63). 큐슈지방의 아마는 한국에서 이주한 것 같다는 증거를 대면서, “둘 다 태평양 연안인 미에현 시마의 아마와 와카야마 현 카다의 아마는 기원이 다르다”, 즉 그들은 아마도 자생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다. 태평양 연안의 아마는 자생적일 것

이라는 생각은 잠수복의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매우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아마들은 전통적으로 벗은 몸으로 잠수를 하였고, 잠수복은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태평양 연안의 아마와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을 모시는 오래된 신사인 이세(伊勢)신궁의 관계는 그들이 한국에서 이주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라 하겠다.

또한 220년부터 265년까지 일본 중부지역에서 잠수업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중국 위나라 역사서에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좋아한다. 물의 깊이에 상관없이 잠수하여 고기를 잡는다"(츠노다 역 1951:20)는 기록이 있다. 일본의 신화적 역사인『고지키(古事記)』와『니혼기(日本紀)』에는 아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으며,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마가 어부인지 나잠업자인지 간에 이들은, "우리는 생선을 먹는 민족"이라는 근대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데 중심이 되지만, 일본의 주류 역사에서 주변적인 존재였다. G. B. Samson이 "고기잡이와 사냥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음에 불구하고, 일찍부터 사람들은 농업사회로 정착하였다"고 이야기했듯이, 봉건사회는 농업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1931:45). 도쿠가와 시대의 계급사회에서 고기잡이는 히닌(Hinnin, 非人)이라는 주변적 카테고리에 속하였다. 힌닌은 사냥, 고기잡이, 도살, 가죽세공 등과 같은, 불교 용어로 하면 오염된 일을 하는 유랑민들이었다. 오누키-티에르니(1987)가 주장했듯이, 이들의 역사는 순수한 사람들과 오염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교류가 가능한 관계 속에서만 상징으로 호젓한 장소에 기록되곤 하였다. 게다가 오누키-티에르니는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역사는 상직적인 연속성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위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마가 기록된 장소의 하나는 헤이안(平安) 시대(194-1185)의 내륙에 있는 궁중의 시가와 문학이다. 여기에서 아마는 주류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삶의 상징으로 등장한다.『만요슈(万葉集)』에 실려 있는 시들은 단순한 낭만적 사회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에는 지역의 여자아마가 자주 등장하는데, 애타게 바라는 마음과 바다에 의지해서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단순성에 대한 향수가 들어있다.『겐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복잡하고 음모가 난무하는 궁정의 세계와 일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비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헤이안 사회의 주변에 있는 어부들의 삶을 단순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등장하는 아마들은 궁정의 사람들에게 많은 연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오늘날 관광포스터에 등장하는 우울, 고독, 자연, 궁정과 도시사회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과 같은 이미지들이다.

아마들은 그림과 같은 것 이상이라는 것, 즉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라는 것은 매우 솔직한 귀족여성인 세이 쇼나곤이 10세기에 여행하면서 아마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쓴 것에 비로소 나온다:

> 바다는 잔잔할 때에도 겁이 난다. 생계를 위해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가난한 아마 여성들에게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들의 허리에 두른 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남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여자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 후, 남자는 뽕나무 껍질로 만든 줄에 주의를 기울이며 배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편안하게 앉아 있다. 이는 놀랄만한 광경인데, 남자는 여자가 감당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올라오려고 줄을 당기면 남자는 내가 이해할만한 속도로 여자를 잡아당긴다. 곧이어 여자는 힘든 숨을 몰아쉬며 뱃전을 붙잡는다. 이러한 광경은 외부관찰자마저 자신의 몸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 일은 누구나 탐낼만한 직업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모리스 역 1967:247-248).

이러한 광경에 여자는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쓰고, 남자는 전기 도르래와 가게에서 산 로프를 사용하면서 배 끝에 모터를 단 보트에서 기다린다면, 현대의 아마의 모습일 것이다. 물속에 여자가 있고, 남자는 아마의 생명줄을 배 위에서 바라보고, 아마는 숨을 몰아쉬며 뱃전에 매달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아마의 채취물 중 중요한 것은 항상 지배계급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산 조개인 전복이다. 도쿠가와 시대에 전복을 영주에게 바치는 것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교역과 관련된 아마의 기록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캘랜드(1984, 1988)의 연구가 있는데, 그의 연구는 일본 나잠업의 기원이라고도 주장되는 큐슈 후쿠오카현 가네자키의 나잠업의 역사에 초점을 두었다. 아마들은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여러 다른 영주들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물질을 하였다. 중세의 전쟁 때문에 아마들이 완전히 이주하거나 먼 지역에서 채취권을 얻게 된 것처럼 보인다. 캘랜드 역시 도쿠가와 시대의 엄격한 사회조직 때문에 가네자키에서의 아마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것으로 적고 있다. 도쿠가와 시대 가부장제의 주도적인 이상과 이와 다른 아마 사회의 결혼 및 상속전략 간의 긴장이 이동하는 아마의 삶과 토지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 간의 균열을 만들었다. 즉 토지소유권과 모계적 결혼형태가 도쿠가와 시대의 가부장제의 이상에 무너졌다.

세가와(1956)의 연구에서는 아마사회에 짧은 기간동안 부인의 집에서 사는 모거제(母居制)가 있었다고 한다. 캘랜드(1988:47-48)는 나잠업의 쇠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는데, 캘랜드도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거제와 부거제(夫居制)의 이상 간의 긴장이라고 하였다. 여성아마들은 결혼한 후 남편의 집에서 살면서도 한참동안 친정부모에게 돈을 보냈었다. 그러나 여성아마가 가구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실은 결함이 된다.

메이지 유신으로 결혼법이 변하기 전에는 일본 전역의 결혼과 상속유형은 매우 다양했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결코 항상 부계를 따르지 않았다(Bachnik 1983; Befu 1963:1,329; Hendry 1981:16). 그렇다고 농업가구나 상인가구 내에서 여성들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자키의 할머니들(1984-85년에 60대, 70대)은 인터뷰에서 전전(戰前)에도 결혼한 여성 아마들이 몇 년 동안 출가물질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여성 아마들이 출가물질을 가면, 남편들은 처가를 위해 일을 하거나 자신들도 이주노동에 종사하였다(사실 많은 구자키의 할아버지들은 해군에 있었다). 다른 여성 아마들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출가물질을 나가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에서 벗어났다.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서 아마들이 강인한 퍼스낼리티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가구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에 젊은 여성은 남편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고, 나아가 애정이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될 수 있었다. 린하르트(1988)가 주장하듯이 남편의 경제력과 비교하여 여성 아마의 높은 경제력이 여성의 높은 지위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내가 다른 논문(Martinez 1988)에서 주장했듯이, 가구 구성원 누구나 각자 번 돈은 모두 가구의 전체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의 높은 경제력이 가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모거제와 가구에서의 여성 아마의 지위에 관한 주제를 단지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시마의 아마에 대해 많은 글을 쓴 이와타 주니치는 “저 마을에서는 여자가 지배자이고, 이 마을에서는 남자가 지배자이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Iwata 1931:81; 1961:1). 이와타는 아마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남자들은 여자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저”(ano)라는 지시대명사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노”는 부분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떨어진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어떤 장소”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여자가 지배자인 마을이 어디에 있을까? 내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구자키 아마들은 부모나 남편이나 아들에게 복종적일 필요를 느끼지는 않으나, 남자에 비해 2차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징표는 여러 가지 나타난다. 즉 공공회의에서 지목받지 않는 한 말하지 않는 것(아마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에도 모든 남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비롯하여,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가족의 거의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제일 나중에 먹고, 집안일과 빨래를 하고, 욕조를 청소하고 욕조에 물을 받고, 제일 나중에 목욕을 하고, 제일 나중에 잠자리에 들고, 절, 신사, 마을회관 등에서 남자 뒤에 앉고, 학부모회의나 조합이나 마을의 장(長)이 되지 못하는 것 등이다.

1980년대 아마와 중산층 여성의 가장 큰 차이는, 중산층 여성의 가구 내 위치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갖도록 돌봐주는 현모양처가 되는 능력에 달렸다면, 아마의 경우는 물질에서 번 소득에 따라 마을 내 가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중산층 여성의 지위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마의 지위는 아마 자신이 만들어내는 마을 내 가구의 [경제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농민의 아내와 대조적으로, 물질로 수입을 따로 얻는 아마의 능력은 일종의 독립성과 지위를 가져다준다(cf. DeVos and Wagatsuna 1961).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사정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을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가 자식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놓았다. 구자키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마나 어부가 되는 것보다는 학업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을 받아 사무직이 되거나 사무직 남성에게 시집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 어부는 어떤 바보가 보트와 그물을 사서 고기를 잡겠느냐고 말하였다. 구자키 남성들은 아들에게 더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 역시 서로의 자식들에 대해 "누구누구는 똑똑해서 성공할 것이고, 누구누구는 똑똑하지 못해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딸들이 고등교육까지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자주 한다. 1984-86년에 이미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들은 아마나 어부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물질은 전혀 하지 않고 여관에서 일을 하거나 도바시에서 일을 하는 젊은 아내들이 여럿 있었으며, 건축 일을 하거나 시청에 공무원으로 다니는 젊은 남성도 여럿 있었다.

따라서 구자키를 20여년 방문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역할이 도시의 중산층의 이상과 점점 가까워져, 자녀를 돌보는 일(어머니들이 물질을 할 때에는 조부모들이 했던 일)과 자녀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21세기에 많은 여성들이 물질이 아닌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1984년에 100명이 넘던 아마의 수가 2004년에는 약 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700여명이던 마을인구가 500명이 채 안되게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물질 기술은 잊혀져 가고 있다. 데이비드 플래스, 루스 린하트, 그리고 나도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여름에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물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전복 수입이 여전히 좋아 전업 어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구자키에 대해

내가 아마 연구를 한 구자키는 어촌이었으나 지금은 미에현 도바시에 편입되었다. 도바시와 미에현은 화가인 우타마로 키타가와(1753-1806)가 많은 그림을 그린 시마반도에 속해 있다. 구자키 마을의 역사는 2천년이 넘고, 지금처럼 항상 산으로 이웃마을과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었다. 사실 마을이름의 한자는 구니(國)와 사키(崎)로, "나라의 끝"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 마을사

람들은 필요할 때에는 표준 일본어(학교에서 배운)로 말하지만, 대개는 '구자키 벤'이라는 마을 방언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어로와 물질과 관련된 이름은 이웃 아마 마을의 이름과도 다르다. 구자키 마을이 항상 그곳에 있어 왔다는 주장은 마을이 이세신궁 및 아마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준다. 아마테라스는 하늘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 모든 일본인의 조상이 되었다. 따라서 구자키는 일본인다움이라는 담론의 중심에 있다. 또한 이세신궁의 건축구조가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이세신궁은 2천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

구자키의 마을신 역시 아마테라스인데, 이는 일본에서 특이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 구자키 마을사람들이 외부세계와 강하게 연결된 일은 노시전복(전복포)을 이세신궁에 매년 바치는 일인데, 1980년대까지 행해졌다. 따라서 이 마을은 이세신궁을 모시는 신성한 조합(간베神部)으로 불려왔다. 구자키에서 10년간 조사한 아이치대학의 연구자들은 선사시대에 공주가 방랑했다는 전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세신궁과 구자키의 관계가 6-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기록은 언급하였다(Aichi Daigaku 1966:16-17). 이 시기가 일본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이다. 그러나 이세신궁과 구자키의 관계는 1111년(텐에이天永 2년)부터 이세신궁 내궁(內宮)에 보다 잘 기록되어 있다.

아이치대학 보고서(1966:16)에 따르면, 구자키는 도쿠가와 시대동안 도바번(藩)의 영역에 속했다. 야마토 히메(姬)상으로 불리는 이세의 여사제—마을의 봉헌을 관장하는 여사제—가 관할하는 이세의 영역에 구자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자키는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사실 구자키는 간베(神部)의 하나였고, 다른 간베 마을들은 봉헌과 사제의 음식을 위해 벼농사를 했다. 간베의 마을들 간에는 구자키 사람들이 참석할만한 거리에 있는 신사들마다 의례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묶여 있었다. 다른 간베의 의례에 참석하는 관습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 과거에 비해 지역의 신사들을 참배하는 일이 적어졌다. 이세신궁과 영주라는 두 가지 지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이세신궁에서 주는 고정된 전복 값과 영주가 전복 값을 조정하는 것 둘 다에 불만을 가졌다. 현대의 마을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강압적이라고 회상하지 않고, 대신에 과거에 이세 및 봉건체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다. 도쿠가와 시대의 매우 경직된 사회조직을 생각할 때, 이는 미약한 역사적 실체에 대해 향수어린 신화화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때 이세에 봉헌하는 것을 잠시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충성의 의무는 끝이 난다(Kuzaki Kambeshi 1936:66). 1878-1890년경에 전복포를 바치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구자키의 몇몇 할머니들의 말에 따르면, 이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야기에 따르

면, 그전에는 여자들이 이세에 바칠 전복포를 만들었는데, 국가차원의 신도에 따라 봉헌이 재개되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전복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그때부터 남자들이 그 일을 하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묻자, 한 할머니는 웃으면서, “할아버지들이 더 좋은 일을 할 것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아마도 몇 세기 동안 불교에 흡수되었던 신도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남자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탓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승려와 구별되는 신도의 사제가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지만,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외에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지난 150년간 일어난 정치적인 변화는 마을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도바번의 영역에 있던 마을들은 도바현에 속하게 되었다. 1877년에 도바현은 도바시가 되어 미에현에 속하게 되었고, 구자키는 북쪽에 이웃한 이지카(石鏡)와 행정적으로 한 마을이 되었다. 1890년에 다시 행정적인 이유로 구자키는 5개 마을이 합해진 나가오카 무라(村)의 한 부분이 되었다((Kuzaki Kambeshi 1936:67). 무라라는 행정단위의 중심은 구자키의 남쪽에 이웃한 오사츠(相差)였는데, 이를 구자키 사람들은 싫어했다. 1955-56년에 5개 마을이 각각 도바시의 한 구역으로 들어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구자키와 오사츠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두 마을의 어업협동조합이 합병되는 20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두 마을의 어협이 합쳐진 것은 일본 전역에 걸쳐 농협의 합병과 어협의 합병이 이루어질 때였다. 2004년에 구자키-오사츠 합동 마츠리(축제)를 보았는데, 두 마을/지구가 가까워 진 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축제로 고래모양의 머리를 가진 칸논(觀音)을 기리는 축제이다.

구자키에는 가치도(徒人)와 후나도(船人)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아마가 항상 있어 왔다. 가치도는 해안가 아마, 즉 해변에서 500-1,000미터 떨어진 바다로 나아가서 물질을 한다. 물질 장소가 해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면, 가치도는 6-8명이 한 조가 되어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 돛을 내린 배의 주변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어떨 때에는 가치도 아마가 너무 멀리까지 헤엄쳐 나가 항구까지 데려다 줄 다른 배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치도는 대개 30, 40대이며, 한 여름에는 60, 70대 여성도 물질을 한다. 가치도는 5-6미터 깊이에서 20-30초 동안 잠수를 하고, 물 위에 올라 약 20초 정도 쉰다. 1984-1986년 구자키에는 대략 80명의 가치도가 있었고, 그 중 20명은 남자였다. 이 남자들은 대개 부인도 가치도이며, 전업 어업가구의 사람들이다.

후나도는 좀 더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고, 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40대에서 60대의 아마이다. 후나도는 전복채취기에 항상 배 위에서 잠수한다. 1984-1986년 구자키에는 20명의 후나도가 있었는데, 19명은 남편과 아내가 팀을 이루었고, 나머지 1명은 미혼인 35세의 아들과 팀을 이루었다. 후나도 여성아마들은 해안가에서 1킬로미터 이상 먼 바다로 나가 10-15미터 깊이에서 평

균적으로 약 1분 동안 잠수한다. 대부분은 3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지만, 그보다 짧은 잠수와 20-30초간 휴식으로 페이스를 지킨다. 후나도들은 구자키의 가치도가 자신들의 수준까지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가치도 중에는 결혼과 출산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물질을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후나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쌓을 수도 없고 후나도의 기술까지 발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후나도는 대개 16세부터 직업적으로 물질을 한 세대의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자들이 더 많이 물질을 하기 때문에, 구자키에는 후나도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정말로 1984-1986년에 규칙적으로 물질을 하는 젊은 여성은 없었다. 제일 젊은 아마가 30대 초반이었다. 20대의 며느리들은 도바시에서 일을 하거나 마을의 여관에서 일을 하였다. 16세 이상의 소녀들은 물질을 하지 않았다. 1940년대 말 출가물질이 끝나갈 때 이후에는 어릴 때부터 물질을 배워 가치도가 되어가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950년대에는 여성들이 집에 머물면서 물질을 하였고, 1960년대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다 결혼을 한 후에야 물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0년대 전형적인 젊은 아마들은 그들이 자란 마을 밖으로—아마도 사무직 남자에게—시집가는 것을 원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자키 남자에게 시집을 간 후 비로소 물질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아마가 되었다는 것은 가정주부의 계층으로 올라가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여성들은 신중한 선택의 결과로 아마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을 남자와 결혼한 후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에서 태어난 아마들은 마을로 시집을 온 후 물질이 파트타임으로 돈을 버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물질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물질을 배운 아마들은 물질을 해 온 시간이 적었고, 어른이 다 되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후나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다. 전통적으로 젊은 아마들 중 최고만이 후나도로 일을 하였고, 다른 아마들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추게 된 후에야 후나도까지 올라갔다. 해안가 아마로 잠수기술을 연마한 후, 바닷속 밑(이소磯)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숙련된 후나도로 승급하는 것이다. 즉 오랜 경험으로 바닷속 밑의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며,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를 남에게 비밀로 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숙련된 아마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일부는 시어머니에게 배우지만, 이소가 계절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물질을 적응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마을 어협의 지시에 따라 물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응시켜야 한다. 게다가 후나도의 머릿속 지도가 1년 전 것이라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채취할 물건에 따라 채취기술도 달라지므로, 물건에 따라 필요한 기술은 나이든 아마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숙련된 아마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같이 물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건을 눈여겨 본 아마들이 다른 아마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구자키에서 흔한 일이다. 가장 심한 평가는 “그녀는 온종일 물 위에서 쉬기만 했네”라는 말이다. 아마들이 동료와 자기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마을 소문은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다이료(大漁)는 금세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나며, 계속해서 물건을 적게 잡으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내가 처음 잡은 것이자 유일하게 잡은 전복 하나를 채취한 날에 마을의 소문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다. 해질녘이 되자 모든 마을이 알고 나의 다이료에 대해 놀렸다. 구자키 아마들은 어떤 아마가 왜 항상 많이 잡거나 왜 항상 못 잡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빨리 자진하여 말한다. 많이 잡는 아마는 숨을 오래 참아 전복을 잡거나 해조류를 많이 잡을 만큼 오랫동안 물속에서 있다고 말한다. 잘 잡지 못하는 아마는 두려워하고, 갈라진 틈에 손을 집어넣다 다칠까봐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숨이 짧고, 게으르고, 너무 오래 쉰다고 비난받는다. 요약하면, 잘 잡지 못하는 아마는 많이 잡으려면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많이 잡는 아마들은 단지 숨을 오래 참는 것만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적도 없고, 두렵다고 말하는 적도 없다. 숨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30초에서 1분간 잠수할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페이스로 물질하는 능력과 되도록 짧게 쉬고 다시 잠수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구자키에서는 단지 남자들만 물질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남자들은 자신들이 나이든 후나도 아마의 기술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 물질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 아마들은 자신들의 힘과 스피드를 자랑하고, 정말로 많이 잡을 수는 없을지라도 가치도로서는 얼마나 많이 잡는지를 지적한다. 전복으로 많은 수입을 올려온 가구의 전업어부에게 그러한 수업이 없어지면 큰일이다. 1991년에 구자키에서 여성아마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어부에게 묻자, “우리 자신들이 물질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잠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한 어업의 쇠퇴도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에 들어와 마을의 전업어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 론

아마에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나는 봉건시대 내내—특히 결혼, 상속, 여행규칙에 관한 새로운 법에 따라—아마의 삶이 여러 면에서 변화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시마에서는 채취물에 대한 봉건적인 감독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적응하여 아마 마을들이 살아남았지만, 구자키

의 경우 나잠업은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구자키의 경우, 20세기 내내 일어난 변화로 아마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넌지시 비쳤다. 국민국가의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일본 전역에 스며들면서, 소녀들은 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기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 계급과 지위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 현모양처의 의미가 일 잘하는 노동자라는 오래된 농촌의 이데올로기에서 가사에 전념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거칠게 되지 않는 파트타임 일이 더 선호되고 있다. 다른 현대사회에서처럼 일본여성의 이미지도 억센 노동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창백하고 매력적이며 잘 차려입은 여성의 이미지이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후루사토(故郷) 찾아가기 열풍도 한 몫을 하였다. 국내여행객들이 아마 마을을 찾자 지역경제가 좋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물질을 하기보다는 여관을 운영하거나 관광객을 상대하는 장사에 종사하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전체의 어업의 변화이다. 앞에서 어업조합의 합병은 이야기했지만, 일본 전역에서 과도시화, 산업오염,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업조합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마반도의 몇몇 마을에서는 진주양식이 지역경제를 떠맡고 있지만, 전복을 양식하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삶의 방식으로서의 어업과 나잠업은 20세기에 걸쳐 굉장한 고통을 겪어왔으며, 전복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만이 나잠업을 지탱해주고 있다. 어업종사자들도 잘 알고 있는—1980년대 어업종사자들은 보통의 도시거주자보다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환경변화가 전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어업공동체의 생계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아마도 예외는 아니다.

Changing traditions amongst Japan's ama

D P Martinez
SOAS, University of London

Introduction

When I first began pre-fieldwork research on the Japanese divers (*ama*) in 1981/82, there was only one major anthropological publication in English: Maraini's *Hekura shima* (1962). The famous Italian ethnographer was best known for his work on the Ainu and was also a keen photographer, hence this book on the *ama* is more about the photographs of the women from *Hekura shima,* who still dived partially naked, than it is an ethnography given only a two week stay on the island. The book was useful in terms of its bibliography; interesting in that it inspired Ian Fleming's *You only live twice* (1978); and important for its documentation of a form of diving that has been on the wane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for its argument that the *ama* were not like other Japanese. Maraini's main premise for the *ama*'s difference was based on what he saw as the matriarchy of the divers, that men held secondary status in Hekura in the way that they did not in the rest of Japan (see also Linhart 1988). There are, as I have argued over the years, many problems with this representation of the *ama* and it was, initially, the work of a student on Korean divers that helped me tackle the issue in a properly academic way: Cho's 1979 unpublished PhD thesis looked at how matrilineal marriage patterns in Jeju did not correlate with a superior gender status for the divers. It was an important work to encounter for my own pre-fieldwork research because much of the other work I encountered in English picked up this idea of matriarchy (cf. the various articles in Rahn and Yokoyama [eds] 1965) and possible different ethnic origin for *ama* than that of other Japanese. One key factor in the argument was that *ama* tended to be taller and heavier than other Japanese women, while they also had greater lung capacity and a high tolerance for cold water (cf. Teruoka 1932; Keatinge 1969). The work of physiologists throughout the 1970s appeared to confirm a

biological difference in Korean and Japanese divers, however when Dr S Y Hong spoke at a medical conference in 1984 I took the opportunity to ask him about this only to learn that he (and his team of researchers I assume) had pretty much lost interest in this aspect of divers since the use of wetsuits had returned their shiver factor and cold water tolerance to that of the average person. This idea that the divers were ethnically or racially different from other East Asians began to disappear from the research.

However, Mariani held onto this theory to the end – sometimes appearing at my papers to tell me how misguided I was to argue that *ama* seemed to be ethnically ordinary Japanese. Of course, the issue of what an 'ordinary Japanese'might be ***is*** a big question,[1] but Mariani's position seem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that imagined that the traditional farming patrilineal household (*ie*) was the model for all forms of kinship, marriage and work organisation in Japanese society. Historically this is inaccurate, as the great Nakane Chie documented in her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rural Japan* (1967), building on the research led by Yanagita Kunio (1931; 1981) into the variety of traditions, practices and beliefs held throughout the coasts and islands of Japan. Moreover, the idea that some *ama* might have migrated from Korea (considered by Japanese researchers, see: Birukawa 1965) because of how close their work patterns are to those of the Jeju divers is, as is said in English, a bit of a red herring, since ancient Korean origins are probably shared throughout the Japanese popul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an ongoing relationship between groups of people who practise such similar patterns of diving, as well as whose men were ocean faring fishermen, should not be ignored. Segawa noted the presence of an unhappy Korean wife in Kuzaki in the 1930s (1956:19) and despite denying any Korean connections in the 1980s, the grandmothers of Kuzaki would tell me of summers spent doing *dekasegi* (migrant labour): when unmarried -- working with groups of other divers in other parts of Japan; and once married, taking the family boat up and down the coasts of Japan and sometimes over to Korea. One grandmother could still count in Korean and remembered summers spent on Jeju when she was little, taken by her parents who were fishing and diving there.

---

1) Genetic research appears to show that the modern Japanese bear a mixture of Ainu, as well as Chinese and Korean genetic markers. The markers associated with Okinawans and Ainu are rare in the general population, but appear to argue for a close a racial association wit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cf. http://www.jref.com/culture/origins_japanese_people.shtml).

In short, as the work of Japanese researchers demonstrates: the lives of the men and women who lived by the sea were often striking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nd dwelling rice paddy farmers. The Tokugawa (1603-1868) consolidation of Japan, followed by the Meiji Restoration (1868) and the nation-state building of the twentieth century tended to obscure this fact for both foreign researchers of Japan and modern Japanese, who regard the *ama* as somewhat strange and unusual, not fit for anyone who is studying Japan to think about. David Plath (n.d.), who began research on Shima *ama* at about the same time as I did, and I both were told by Japanese that we should not be studying such atypical representatives of what is Japanese. Yet, the *ama* remain fascinating for a variety of reas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being, as Plath has noted, their long engagement, management and knowledge of the sea as a natural resource. In this paper I want to consider, albeit in a brief way, what we know about how the *ama* in Japan have weathered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 changes – how they have managed, until recently, to adapt to all of these factors. My main example remains the divers I am most familiar with, the men and women of Kuzaki, whom I first encountered in 1984 and last visited in 2004 – thus do not be surprised to find that there are some very specific examples in my talk that do not apply generally, while many others, importantly, appear to be common throughout Japan.

The Question of Ama's high status – general background

I still find Maraini's definition of the *ama* useful: They are fisherfolk "who are distinguished from their neighbours by the fact that both men and women are skilled at every kind of fishing and underwater food-gathering" (1962: 17). For several reasons, this is a useful way to describe the *ama*. The fact that they are people skilled at fishing and underwater food gathering is important to note. Many westerners who have heard about *ama* assume that they dive for pearls—that they are pearl divers. This is simply not true, although the *ama* in the Shima area have long been involved in the cultured pearl industry. Maraini's definition also makes clear that an *ama* can be either a man or a woman; another popular idea about these divers is that only the women dive. Fin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term "*ama*" itself can be misleading. Depending on the characters used to write it, the word has various meanings—all describing a person who fishes: fisherman,

diving woman, or fisherfolk in general.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e various other meanings that the phonetic sounds *ama* can have, for as the anthropologist Kalland has noted, "Any historical study of the *ama* is troubled by the ambiguity of the term itself"(1988: 48n. 1). Records that do not use the Chinese characters for the term could be referring to male divers, female divers, or fishermen. Thus any historicaloutline of the history of diving in Japan must be cautious about assuming the sex of the diver—or whether the text is referring to a diver at all. In fact, outside of these various usages there also exists the vague division between its use to describe a profession—fishing and diving—and its use to describe the practitioners of that profession as a separate, almost ethnic group as I have noted.

Many of the sources on the *ama* agree that the tradition is an ancient one in Japan. Physiologist Nukada Minoru states that they have existed for at least two thousand years and points to archaeological findings from the shell mounds of the Neolithic period as proof of this (1965: 27). Kalland also refers to shell mounds in Fukuoka Prefecture, Kyûshû, where there have "been found whalebone tools resembling the iron knives later used to cut the shell loose from rocks"(1988: 30).Exactly when or where this mode of fishing originated is not really certain, but the geographer Birukawa Shôhei notes that "two or three places have been suggested" (1965: 63). While he cites evidence that some Kyûshû divers may have migrated from Korea, he carefully notes that the "Ama of Shima in Mie Prefecture and those of Kada, Wakayama Prefecture, both on the Pacific side are presumed to be of different origin"—that is, they are possibly indigenous. The idea that the *ama* of the Pacific coast are indigenous is pursued on the basis of different clothing worn by the women when diving. One must be careful of such analyses, however, since as I have already noted divers traditionally did their work naked and clothing is purely a twentieth-century phenomenon. Also, the relationship of Pacific divers to Ise Shrine, the ancient Shinto shrine of the goddess Amaterasu, might well be part of the reason for arguing that they are not migrants from Korea.

There do exist records of dive fishing in the central part of Japan from C.E.. 220 to 265. The Chinese histories of the Wei dynasty noted: "The people are fond of fishing, regardless of the depth of the water, they dive to capture fish" (translated by Tsunoda 1951: 10). In the Japanese mythical histories, the *Kojiki* and the *Nihongi,* mention of the *ama* is rare and rather vague. Whether fisherman or diver, the fact remains that both groups of people,

while central to a construction of a modern Japanese identity ("we are people who eat fish") are also marginal to the dominant history of Japan. As G. B. Sansom noted, "though fishing and hunting were important means of food supply, it seems that the population from an early date was formed into settled agricultural communities,"and it was upon these communities that the feudal society was based (1931: 45). Important as well is the fact that the increasingly stratified society of the Tokugawa era placed fishing in that marginal category of *hinnin*—wandering people who, in Buddhist terms, were engaged in polluting work such as hunting, fishing, butchery, or leatherwork. As Ohnuki-Tierney (1987) argues, the history of these people is often to be found recorded in the oddest of places, encoded in symbols and the sorts of relations allowed between those who were pure and those who carried the burden of impurity. Moreover, Ohnuki-Tierney argues that the history of such "special status people" is not really one of symbolic continuity, but one in which the special status accrues different meanings throughout time.

Thus, one place where we find the mention of the *ama* is in the literature and poetry of the inland court during the Heian period (794–1185), where they appear as a metaphor for a life lived away from the constraints of the dominant society. The poems found in the *Manyôshû* paint an evocative picture of a simple romantic world. Frequently the diving women of the area are mentioned; there is often a sense of longing in these poems, a nostalgia for the beauty and simplicity of life by the sea. There seems to have been a very simple but direct opposition in this pre-Tokugawa era between the complicated, intrigue-filled world of the court, as portrayed in *The Tale of the Genji,* and the life of the people on the periphery of Japan—the fisherfolk who were physically as well as metaphorically on the edge of Heian society. The divers in these poems held many associations for the Japanese of the courts – imagery which can still be found in the tourist posters of today: melancholy, solitude, nature, and freedom from the constraints of court/urban society. That divers were more than picturesque—that they were hard-working women—seems to have been perceived only by the very frank Sei Shônagon, a noblewoman who during her travels in the tenth century saw the divers at work and noted:

> The sea is a frightening thing at the best of times. How much more terrifying it must be for those poor women divers who have to plunge into its depths for their livelihood. One wonders what would happen to them if the cord round their waist were to break. I can imagine men doing this sort of work, but for a woman it must take remarkable

> courage. After the woman has been lowered into the water, the men sit comfortably in their boats, heartily singing songs as they keep an eye on the mulberry-bark cord that floats on the surface. It is an amazing sight, for they do not show the slightest concern about the risks the woman is taking. When finally she wants to come up, she gives a tug on her cord and the men haul her out of the water with a speed that I can well understand. Soon she is clinging to the side of the boat, her breath coming in painful gasps. The sight is enough to make even an outsider feel the brine dripping. I can hardly imagine this is a job that anyone would covet. (Morris trans.1967: 247–248)

If we were to add wet suit and face masks, and the husband using an electronic pulley and store bought rope, while waiting on a boat with an outboard motor, this description could well fit modern divers. The woman below, the man above watching the diver's life cord, the diver surfacing, clinging to the side of the boat, and gasping for breath—all this remains the same.

The main catch of divers has always been abalone *(awabi),*a shellfish much valued among the ruling class. The sale and presentation to feudal lords of abalone during the Tokugawa era, as well as the exportation of the shellfish to China, mean that economic records of the *ama* in relation to trade do exist. Some preliminary work on this has been published by Kalland (1984; 1988), whose research centred on the history of diving in Kanezaki in Fukuoka Prefecture, Kyûshû, the village which some hold to be the origin of all diving in Japan. It is from this article that we get a picture of the *ama*as highly mobile, with entire families travelling on boats to different feudal domains in order to dive. Medieval warfare seems to have caused the *ama* to migrate permanently or to obtain fishing rights in distant waters. Kalland also documents the way in which he believes that the rigidity of Tokugawa social organization helped to destroy the *ama* way of life in Kanezaki. The tension between the different marriage and inheritance strategies followed by diving communities and the dominant ideals of Tokugawa patriarchy created a rift between the life of *ama* wandering and the land-based ideology of this period. That is: land ownership and matrilineal marriage patterns had to give way to the patriarchal ideals of Tokugawa.

That there was short-term matrilocality in *ama* communities is verified by the work of Segawa (1956). Kalland (1988: 47–48) also attributes the decline of diving to many factors as noted above, but he includes the tension between matrilocality and the virilocal ideal as one central factor. Divers may have even lived virilocally and sent money, for years after

marrying, to their parents; yet as an argument for *ama* as women who held higher status within the household, this is flawed. One of the problems with this view is simply that until the change of marriage laws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marriage and inheritance patterns throughout Japan were varied and by no means always patrilineal as I have already mentioned (Bachnik 1983; Befu 1963: 1,329; Hendry 1981: 16). This did not, however, ensure a higher status for women in agricultural or merchant households.

What I learned from interviews with Kuzaki grandmothers (sixty to seventy years of age in 1984–1985) is that even in prewar Japan, married *ama* spent many years doing migrant labour *(dekasegi)* away from their villages. While they worked, their husbands either did some husband service for the wife's household or were occupied in migrant labour of their own (in fact, many of the Kuzaki grandfathers had been in the navy). Other divers travelled with their husbands and children while working and thus were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being a daughter-in-law. It is this freedom from the mother-in-law that might well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trong personalities in divers. Living away from the household also gave the young women a chance to become close to their husband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n affectionate and good working partnership. That the huge earning power of a diver as compared to that of her husband led to a woman's higher status, as Linhart posits (1988), seems dubious to me. As I have argued elsewhere (Martinez 1988), all money earned by anyone in a household went into the coffers of the household as a whole and did not affect the Confucian patriarchal ideals on which the household was modelled.

This theme of matrilocality and the status of women in the *ama* households is only partially dealt with by modern researchers. For example, Iwata Junichi, who writes extensively on the divers of Shima, notes that he was frequently told, "In that village women are the bosses, in this village men are the bosses" (Iwata 1931:81; 1961:1). Iwata believed that women held the power in *ama* communities and that men said such things only as a way of dismissing that power. One problem with this reading of the statement is that the use of the demonstrative adjective "that" *(ano)* is vague. *"Ano"* is used to refer to a place that is partially and normatively removed; in this case, it might best be translated as "some other place where such things occur." Just where were these villages in which women were the bosses? As far as I was able to ascertain in my own research, Kuzaki *ama* did not feel any need to act submissive or inferior to their fathers, husbands or sons, but there were ways in which they were marked as having secondary status to men: first up in the

morning; preparing almost all meals for the family; eating last; doing the laundry and housework; cleaning and filling the bath; bathing last last to bed; as well as not speaking in public meetings unless called on (or if wanting to speak to an important divers'issue, waiting until all the men had spoken); sitting behind men in the temple, shrine and community hall; and never being the head of the PTA, co-operative or village. Women could act as heads of households if their husbands were away or if they were widowed and their sons were young, but not otherwise. In short, publically and in the home, women deferred to men.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ama* and the middle-class women I knew in the 1980s however was that the latter's standing in the household was based on their ability to be good wives and mothers who helped their male children get into the best universities and hence the best jobs, while the former exerted their effect on household 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by the income earned through their diving. While middle-class women took their status from their husband's job, divers took it from their household's relative standing in the community –a standing which they were actively involved in creating. In contrast to farmers' wives, their ability to provide a separate source of income through their diving, also earned them some independence and status (cf. DeVos and Wagatsuna 1961). However in the mid 1980s things were changing: the modern emphasis on social mobility through education also changed attitudes toward a child's future. Most parents in Kuzaki hoped that their children would continue their schooling and go on to some form of higher education, thus perhaps becoming or marrying white-collar workers rather than divers or fishermen. One fisherman told me that any idiot could buy a boat and nets and take to fishing; Kuzaki men had higher hopes for their sons. Women as well would comment on each other's children, saying: "So-and-so is bright and will go far; but such-and-such is not so bright and will have to be a fisherman." The idea that daughters should go on to higher education was often expressed. By 1984–1986 there already existed a generation of young adults between eighteen and thirty years of age who did not want to work as divers or fishermen. In this generation were several young wives who only did *ryokan* (inn) work or who had jobs in Toba City, as well as several young men who did construction work or work for the city government.

Thus, one of the things I have observed in over twenty years of visiting Kuzaki is that the role of women has moved closer and closer to that of the urban middle class ideal,

with a greater emphasis on childcare (once done by grandparents whilst mothers dived) and children's educa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more women are involved in part time work that does not involve diving (from over 100 divers in 1984, there were only about 50 in2004, but this also correlated to a fall in village population from over 700 people to just under 500) and diving skills are being lost. David Plath, Ruth Linhart and I have all observed that more men are diving more often rather than just in the summer, since the money earned from the sale of abalone still is too good to give up for full time fishermen.

On Kuzaki

Kuzaki, where I have done most of my *ama* research, was once a village and is now a ward of Toba City in Mie Ken (Prefecture). The city and prefecture are both part of the Shima Peninsula, an area recognizable as the setting for many of the prints of the artist Utamaro Kitagawa (1753–1806). The village histories claim that Kuzaki is over two thousand years old and has always existed as it does now—a small community physically cut off from nearby villages by the mountains. In fact, the characters that make up the village's name are *kuni* and *saki,* which the older villagers used to mean "land's end." The villagers spoke, when needed, standard Japanese (learned in school) and the broader village dialect, *Kuzaki ben*. Added to this are village terms relating to fishing and diving that are not the same as those found even in nearby diving villages. Kuzaki's claim to have always been there reaffirms itslinks with Ise Shrine and Amaterasu, the deity who rules the heavens and, through her son, is ancestress to all the Japanese; this places Kuzaki at the very centre of a discourse about Japaneseness. There is also the claim that Ise Shrine is two thousand years old, with a temple architecture that supposedly predates all Chinese and other foreign influences. Kuzaki's village deity is Amaterasu herself (not unique in Japan), and in the past, the village's strongest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was its annual tribute of *noshi awabi* (dried and cut strips of abalone)to the sacred shrines at Ise, a tribute it still made in the 1980s. Thus the village was still called a sacred guild *(kambe)* that served the deities at Ise. The researchers from Aichi University, who spent ten years working on Kuzaki, cast polite doubt on the older version of the legend that places the princess' wandering in prehistoric times, but are able to cite documentation on Ise Shrine–Kuzaki relations that date back to

the sixth and seventh centuries c.e. (Aichi Daigaku 1966: 16–17), which is when the Japanese first began recording their own history. The relationship is better documented, however, for the Ise Naikû (interior) Shrine from 1111 c.e. *(Ten'ei ninen).*

According to the Aichi report (1966, 16), Kuzaki was placed under the domain of the Toba Han during the Tokugawa era. This resulted in a great deal of economic hardship because Kuzaki remained part of the Ise domain with the Ise priestesses—known as Yamato *hime-san*—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village's tribute. In fact, Kuzaki was one of several *kambe;* other villages grew the rice for offerings and/or priests' food, and these villages appear to have been tied together by a series of rituals and worship at shrines that Kuzaki dwellers would travel to attend. This practice of taking part in other *kambe*'s rites no longer exists and there was much less pilgrimage to area shrines than in the past. The twofold rule of Ise and feudal lord was the cause of unrest on the part of the villagers, who resented both the fixed price Ise paid them for their abalone and the feudal lord's control of abalone prices. Modern villagers did not recall these relationships as having been oppressive, but instead celebrate their ancient connection with Ise and the feudal system. Given the highly rigid structure of social organization during the Tokugawa era especially, this is a triumph of nostalgic mythologizing over grim historical reality.

The dual allegiance came to an end, politically, with the Meiji Restoration when the giving of tribute to Ise was briefly stopped (*Kuzaki Kamboshi* 1936: 66). It was sometime during 1878–1890 that the gift of *noshi awabi* was resumed and it was then, according to some of the oldest women in Kuzaki, that a major shift occurred. The women had made the *noshi awabi* for Ise (as in the stories); with the resumption of the gift under State Shinto, the women had to teach the men to do this, and the men have done the work ever since. When asked why this occurred, one woman laughed and said, "Because the grandfathers had nothing better to do."It may well be that the raising of status of Shinto practices (which had been subsumed within a Buddhist framework for centuries) meant that it was considered more appropriate for men to do the work. This change appears to predate the arrival of any Shinto priest in the village (as separate from the Buddhist priest), but since I found no evidence of this beyond what women told me, I can only speculate here.

Other political changes, effecting village organisation, have occurred over the last 150 years. The village that had been part of the Toba domain also became part of new Toba Prefecture at this time. In 1877, Toba-ken became Toba-*shi* (city) and was incorporated into

the larger Mie Prefecture. Kuzaki was joined with its northern neighbour, Ijika, to be administered as one village. In 1890, again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village became part of a *mura* made up of five neighbouring villages and called Nagaoka (*Kuzaki Kambeshi* 1939, 67). At the head of this administrative unit was Kuzaki's southern neighbour, Ôsatsu, a relationship that Kuzaki resented. It was a welcome solution when all five villages were incorporated into Toba City proper and were made wards of the city in 1955–1956. Strained relationships between Kuzaki and Ôsatsu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 cooperatives were joined, as part of the various mergers of all farming and fishing cooperatives up in Japan. In 2004 I was taken to see a joint Kuzaki-Ôsatsu *matsuri*, in honour of the whale-headed Kannon – a new rite created to celebrate the new closeness between the villages/wards.

In Kuzaki there had always been two types of divers: *kachido* and *funado*. *Kachido* (walking people) were the shore divers—that is, they generally waded into the sea from a beach and went no farther than 500 or 1,000 meters offshore. Sometimes if a diving area was inaccessible from a beach, *kachido* went out in small boats in groups of six to eight, leaving the anchored boat to swim and dive in the immediate area. Sometimes a *kachido* would swim so far off that she would find another closer boat to take her back to the harbour. Most *kachido* were between the ages of thirty and forty, while in the hot summer, some of the women in their sixties and seventies also dived. A *kachido* would dive to 5 or 6 meters in depth and stay underwater for twenty to thirty seconds with rests of about twenty seconds between dives. In 1984–1986 in Kuzaki there were about eighty *kachido*, twenty of whom were men. These men were often from households that practised full-time fishing and whose wives were also diving as *kachido*.

Funado (boat people) were the older, more experienced, highly skilled divers between the ages of forty and sixty who always dived from boats during the abalone season. In 1984–1986 there were only twenty *funado* in Kuzaki; nineteen were husband-wife teams and one was a woman who dived with her son—an unmarried man of thirty-five—as boatman. These women dived in areas that were more than a kilometre offshore and dived to depths of 10 to 15 meters, holding their breath for an average of one minute. Many could go for as long as three minutes underwater, but they paced themselves with shorter dives and rests of twenty or thirty seconds between dives. Many *funado* claimed that the *kachido* of Kuzaki would never advance to their stage, since the latter included many women who had

only seriously taken to diving after marriage and the birth of their children. These women would never amass the knowledge or develop the skill of a *funado,* who usually came from a generation of women who had been diving professionally from the age of sixteen. In fact, by the twenty-first century, with more men diving, *funado* had almost vanished from Kuzaki.

So, in 1984–1986, there were no young women in the village who dived regularly; the youngest women diving were in their early thirties. The younger daughters-in-law in their twenties worked in Toba or helped in village inns. No girls above the age of sixteen dived. Since the end of *dekasegi* work in the 1940s, there no longer seemed to be a clear pattern of progression from childish practice diving to becoming more skilled *kachido.* Some women in the 1950s had stayed at home and dived; in the 1960s women did odd part-time jobs and began diving in earnest after marriage. In the 1980s, the most typical pattern I found among the younger divers in the village was they that had hoped to marry outside the diving villages in which they grew up—perhaps to a white-collar worker—and when they married a Kuzaki man instead, they began to dive. Thus, for some of the women, to be an *ama* was to have failed at moving up into the class of stay-at-home housewife. For a few others it was a conscious choice: They married a young man in the village whom they liked and went on to learn to dive. A smaller group of women were city-born wives, who after marrying into the village learned to dive because it was a good way to earn money part-time.

This truncated pattern of learning to dive meant that fewer women moved into the *funado* category since they were spending less time diving and began to learn about technique later in life. Traditionally, only the best of the young divers worked as *funado,* and other women moved into that class as they grew older and gained competence and experience. The progression was from a shore diver perfecting her skills to a boat diver who was skilled and could rely on her memory of the sea bottom to help her. That is, the diver's accumulated learning over the years gave her a mental map of the seafloor *(iso),* and it was her ability to keep secret her favourite spots from others that would add to her reputation as a skilled diver. Some of this knowledge was learned from one's mother-in-law, but a diver had to keep in mind how the *iso* changed from season to season and year to year and had to be able to adjust her diving accordingly, while also adjusting this knowledge in light of having to dive as ordered by the village fishing cooperative. With the cooperative's control over diving, even a *funado*'s mental picture of an area might be a year old and not very useful. But different catches required different skills, and these still needed

to be learned from an older diver.

What were the techniques a diver needed in order to be considered skillful *(jôzu)?* The measuring of another woman's skill was commonplace in Kuzaki and was based on the comments made by those who had dived with a woman and by keeping track of the size of catches a woman brought in. "She spends all her time on the surface resting," was one deeply critical statement. Divers were not above comparing their own success or failure with friends, and the village grapevine was extremely quick and accurate. A large catch *(dairyô)* was immediate news throughout the village, and continuous poor catches were also grist for the mill. I learned of the quickness and accuracy of the village grapevine on the day I brought in my first and only abalone: By nightfall, the entire village knew to tease me about my *dairyô.* Kuzaki divers were quick to volunteer information on why a diver was always successful or not. A good diver was said to have long breath, so that they could stay underwater long enough to locate the abalone or gather lots of seaweed. A poor diver was accused of being fearful; of not wanting to scar her hands by reaching into dark crevices; of having short breath; or of being lazy and resting for too long; in short, a poor diver was not willing to take the risks necessary in order to be successful. Interestingly enough, good divers boasted only of having long breath—never did they say that they were not afraid (nor did they say they *were* afraid). Long breath was not only the ability to stay underwater for thirty seconds to a minute; it also meant the ability to keep diving at a consistent pace and to take as short a break between dives as possible.

When speculating on the future in which only men might be diving in Kuzaki, men conceded that they might never make it to the level of skill that the old *funado* divers had, mostly because they would not be able to dive in the husband and wife pattern. However, male divers always boasted of their strength and speed and pointed out how as *kachido,* their catches were always of a good size – even if they never brought in the largest catches. For a full-time fisherman whose household depended on the good income gained from abalone sales, losing that income was a problem. "We'll just have to do the diving ourselves"I was told in 1991 when I asked about the declining number of women divers in Kuzaki. And that is what has happened, although, as with the decline in diving, there has also been a decline in fishing and full- time fishermen in the village have also become a much smaller group in the twenty first century.

Conclusions

In my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ama* I touched upon how various aspects of their lives changed throughout the feudal era; responding to, in particular, new laws about marriage, inheritance, and rules about travel. In the case of Kanezaki, diving seems to have died out, while in Shima -- adapting to, but resenting, the feudal control of their catches -- diving communities like Kuzaki adjusted and survived. In the case of Kuzaki the changes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have affected divers in such a way that their numbers have tumbled. I have hinted at some of the reasons for these changes: as the middle class ideology of the nation state permeated throughout all Japan, young girls have been reluctant to learn how to be divers. Issues of class and status come to the fore here: what it means to be a proper wife and mother has changed from an older rural ideology of being a good worker to being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he domestic work of the household and involved in intensive childcare and socialization. Part time jobs that do not involve being sunburnt by the sun, having one's skin weathered, are also preferred – the image of Japanese women, as elsewhere in modern society, is that of a pale attractive well-turned out woman, not of a sturdy labourer. The *furusato* boom of the 1980s and 1990s also contributed: while domestic tourism to *ama* villages helped local economies, women became more involved in running inns and working for the tourist trade than in diving.

More importantly have been the changes in fishing practices throughout Japan. I mentioned the merger of the co-operatives, but not how the co-operatives throughout Japan have been waging a losing battle against declining sea stocks because of mass urbanization, industrial pollution and over fishing. Attempts to cultivate abalone artificially have yet to succeed, while, for some Shima villages, the cultivation of pearls has taken over local economies. In short, fishing and diving as a way of life have suffered tremendously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and only the continued desire for abalone has kept diving a viable source of income in these sorts of communities. With global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change, concerns that fishermen are not unaware of (in the 1980s I found that fishermen were much more knowledgeable about environmental issues than the average city dweller, not surprisingly), the livelihoods of fishing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 threat and the *ama* of Japan are no exception.

References

Aichi Daigaku 1965 *Ama no mura: Toba-shi, Kuzaki-chô* (An *ama* village: Toba City, Kuzaki Ward). Special Issue of the Memories *(sic)* of the Community Research Institute of Aichi University. Toyohashi City: Aichi University.

Bachnik, Jane 1983 'Recruitment strategies for household succesion: rethinking Japanese household organization.' *Man* 18(1): 160–182.

Befu, Harumi 1963 Patrinlineal descent and personal kindred in Japan. *American Anthropologist* 65(6): 1,328–1,341.

Birukawa, Shôhei 1965 'Geographic distribution of *ama* in Japan.' In *Physiology of breath-hold diving and the ama of Japan,* edited by Herman Rahn and Yokoyama Tetsuro, 57–70.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Publication 1341).

Cho, Haejoang 1979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eVos, George A., and Wagatsuna Hiroshi 1961 Value attitudes toward role behavior of women in two Japanese villages. *American Anthropologist* 63(6): 1,204–1,230.

Fleming, Ian 1978 *You only live twice.* St. Albans, UK: Triad/Granada.

Hendry, Joy 1981 *Marriage in changing Japan: Community and society.* London: Croom Helm.

Iwata Junichi 1931 'Mie no ama sagyô no konseki' (Mie diving women past and present). In *Shima: Shôwa go nen zenki* (Islands: The five years preceding Showa), edited by Yanagita Kunio, 60–122. Tokyo: Takase Sueyoshi.

…1961 *Shima no ama: Fu Shima no gyofu no mukashigatari* (The *ama* of Shima: With reference to the folktales of Shima fisherfolk). Toba City: Shinto Insatsu Kabushiki Kaisha.

Kalland, Arne 1984 Sea tenure in Tokugawa Japan: The case of Fukuoka Domain. In *Maritime institutions in the western Pacific,* edited by Kenneth Ruddle and Tomoya Akimichi, 11–36.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Senri Ethnological Studies 17).

… 1988 'In search of the abalone: The history of the *ama* in northern Kyûshû, Japan.' Reprint from *Seinana Chi-iki no shitekig Tenkai,* 616–588.

D. H. Kang, Y. S. Park, Y. D. Park, I. S. Lee, D. S. Yeon, S. H. Lee, S. Y. Hong, D. W. Rennie and S. K. Hong (1983) 'Energetics of wet-suit diving in Korean women breath-hold divers' in *J Appl Physiol* 54: 1702-1707.

Keatinge, W. R. (1969) 'Survival in cold water: The physiology and treatment of immersion hypothermia and of drowning'. Oxfor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Kita, Hiromasa 1965 'Review of activities: Diving seasons and harvesting patterns.' In *Physiology of breath-hold diving and the ama of Japan,* edited by Herman Rahn and Yokoyama Tetsuro, 41–55.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Publication 1341).

Kurata Masakuni 1974 'Noshi awabi no yurai' (The origin of *noshi awabi*). In *Ise shima,* vol. 13 of *Nihon no minwa.* Tokyo: Rengô Insatsu Kabushiki Kaisha.

Kuzaki Kambeshi (Records of the sacred guild of Kuzaki) var. Unpublished historical records of Kuzaki ward, Toba City, Mie Prefecture, Japan. Various dates.

Linhart, Ruth 1988 'Modern times for *ama*-divers.' In *Contemporary European writings on Japan: Scholarly views from Eastern and Western Europe,* edited by Ian Nish, 114–119. Woodchurch, Ashford, UK: Paul Norbury.

Maraini, Fosco 1962 *Hekura: The diving girls' island.*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Eric Mosbacher. London: Hamish Hamilton.

Martinez, D. P. 1988 The division of labour in a Japanese diving village. In *Proceedings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vol. 11, edited by John Chapman and David Steeds, 133–194. University of Sheffield, Centre for Japanese Studies.

Morris, Ivan, trans. and ed.1967 *The pillow book of Sei Shônagon.* Harmonds worth, UK: Penguin Books.

Nakane, Chie 1967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rural Japa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Athlone Press.

Nukada Minoru 1965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ma*'s diving activities. In *Physiology of breath-hold diving and the ama of Japan,* edited by Herman Rahn and Yokoyama Tetsuro, 25–39.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Publication 1341).

Ohnuki-Tierney, Emiko 1987 *The monkey as mirror: Symbolic transformations in Japanese history and ritu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lath David n.d. 'Lessons from the Ama' on http://www.der.org.docued@der.org.

Sansom, G. B. 1931 *Japan: A short cultural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egawa Kiyoko 1956 *Ama.* Tokyo: Koken Shorin.

…1963 Menstrual taboos imposed upon women. In *Studies in Japanese Folklore,* edited by Richard M. Dorson, 239–25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1971 *Han onna, josei to shôgyô* (Female peddlers, women and trade). Tokyo: Kabushiki Kaisha Miraisha.

Teruoka, G. 1932 *Die ama und ihre arbeit* (The *ama* and their work). *Arbeitsphysiologie* 5: 239–251.

Tsunoda, Ryûsaku, trans. 1951 *Japan in the Chinese dynastic histories: Later Han through Ming dynasties,* edited by L. Carrington Goodrich. South Pasadena, CA: P. D. and Ione Perkins.

Yanagita Kunio, ed. 1981 [1950] *Kaisan no seikatsu no kenkyû* (Research on the customs of coastal villages). Tokyo: Kokuji Kankôkai.

Yanagita Kunio and Hika H., eds.1931 *Shima: Shôwa go nen zenki* (Islands: The five years preceding Showa). Tokyo: Takase Sueyoshi.